



Global Goings-on

미 국

전국민 건강보험 - 저비용 고효과를 위한 미국의 유일한 대안
Health Insurance Is for Everyone - It's the only way to deliver lower-cost health care with better results

- ▶ 2년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메디케어 이래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의료개혁법안을 통과시켜
 - 아직 대부분의 조항들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의 대한 논쟁은 모든 면에서 점점 격렬해지고 있어
 - 26개 주가 이 법안에 대해 법적인 도전장을 내 냈으며 이번 달 대법원은 이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
- ▶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은 미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때는 벌금을 내야 하는 전국민의무가입조항

- 이 조항은 정부가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 시스템 없이도 전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
- 완전 민영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선진국인 스위스가 약 20년 전 미국이 2년 전 내린 결정과 똑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미국인들은 놀랄 수도 있어
-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미국 헌법과 관련된 논쟁엔 별 도움이 되지 않겠으나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형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는 있을 듯
- ▶ 스위스는 전형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는 아님.
 - 스위스는 매우 비즈니스 우호적이며 유럽 내에서도 항상 독자적인 행보를 취해: 스위스는 단일 통화권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다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어
 - 스위스는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 지표에서도 미국을 앞서
- ▶ 20년 전, 스위스는 미국과 매우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었으며 - 민영 보험자, 민영 의료기관 - 동시에 유사한 문제들을 안고

있었음.

-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응급실 신세를 지기가 일수였고 보험사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거절했으며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음.
 - 스위스는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를 통해 의무가입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오늘날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개혁을 단행해
 - 20년이 지난 지금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높고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적절해
 - 스위스는 GDP의 11%를 의료비로 써 미국의 17%와 대조돼
 - 스위스의 8백만 국민은 고용주들과 상관 없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여러 보험 중 선택할 수 있고 매년 보험사를 바꿀 수도 있어
 - 스위스인들의 스위스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
- ▶ 강력한 자유 경제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만은 1990년대 중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 모델들을 연구한 바 있어
- 대만은 전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모델을 선택했으나 스위스, 미국과는 달리 여러 민영 보험사들을 배제하고 메디케어와 유사한 단일보험자를 설립해
 - 그 결과 양질의 전국민 의료혜택이 놀랄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국민소득

의 7%만 의료비로 사용해

- ▶ 미국 의료시스템은 다른 선진국들의 시스템과 사뭇 달라
 - 어떤 선진국도 국민소득의 12% 이상을 의료비로 쓰진 않아
 - 미국인들의 건강도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좋지 않아: 건강생활수명, 유아 사망률, 환자 만족도 모두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처져
 - 간단히 말해,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어
 - 최근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Plans는 여러 나라들의 의료서비스 23종류를 비교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는데 미국은 23종류 중 22종류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드는 것으로 나타나
 - 미국에서 1,080달러 하는 MRI는 프랑스에서 281달러
- ▶ 196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Kenneth Arrow는 한 논문에서 시장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설명한 바 있어
- 사람들은 다른 재화, 용역에 대해서와는 달리 의료 상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 몰라
 - 그리고 의료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가 되면 보통은 그 비용이 엄청나 - 심장마비 등 이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하게 될 때가 되면 이

- 에 대한 치료 비용이 엄청나다는 뜻
-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보험이 필요하게 돼
- ▶ 미국 사회는 갑작스레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이런 의료서비스 시장은 BMW 시장과 다를 바 없어
 - 값을 지불할 수 있을 때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
 - 다시 말해 이런 시장에서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삼중 바이패스 형성 수술이나 인공관절수술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없게 돼
 -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과 그리 부유하지는 않은 국가들도 자국민이 최소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
 -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순수자유시장 모델은 적합하지 않아
- ▶ 스위스와 대만은 건강보험을 갖추려면 모든 국민이 가입한 보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
 -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을 때 부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고 아픈 사람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
 - 산재보험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: 미국 의료비의 50%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%밖에 안 되는 만성 질환자
 - 이러한 이유로 보수적 think tank인 Heritage Foundation은 1980년대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제안하게 돼
- 이러한 이유로 Mitt Romney는 메사추세츠 주지사로 있을 때 전 주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시장 친화적 시스템으로 선택해
- 이러한 이유로 Newt Gingrich는 메사추세츠 모델을 의료개혁 역사상 최고의 약진으로 칭찬해
- 최근 이 둘은 모두 생각을 바꾼 듯 하지만 정치는 정치일 뿐 경제와는 달라
- ▶ 오바마케어는 분명 완벽한 시스템은 아님.
 - 여전히 고용과 건강보험을 연계하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며 미국 비즈니스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
 - 미국 기업들은 현 고용인 및 전 고용인들의 건강보험료로 수 백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독일, 캐나다, 일본, 영국 등에 있는 경쟁 기업들은 이 부분에 거의 한 푼도 쓰지 않아
- ▶ 오바마케어는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할 것이지만 비용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무능해 보여
 - 메디케어 비용이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진 않지만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이 지불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해
 - 일부에서는 이런 위원회의 설립을 “사망선고를 내리는 패널”이라고 과장해 비판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없다면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은 불가능해

- ▶ 미국 의료시스템에 관한 논쟁에서 오바마케어를 강력히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추상적인 시장 경제의 이론적 명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
 - 물론 원칙은 언제나 논쟁의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논쟁은 사실에 기반을 둔 현실에도 기반해야
 - 그리고 현실은 시장경제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와 대만을 포함한 외국 20 개국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이나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
 - 이 나라들 모두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훨씬 나은 국민 건강 성적표를 받아
- ▶ 우리의 책임은 이 세상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 시장경제 유토피아 때문에 미국의 개혁 시스템을 폐지할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현실을 받아 들이고 그것을 개선해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

2012년 3월 26일 / TIME

<원문링크: <http://www.time.com/time/magazine/article/0,9171,2109128,00.html>>

영국

흡연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밀수를 부추길 수도 있어 Efforts to stub out tobacco smoking could boost smuggling

- ▶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영국에서 압수된 밀수 담배는 2백억 개피, 종으로 말은 담배는 2천7백 톤
 - 이들은 장난감이나 보드게임 상자로 둔갑되거나 키위, 오렌지, 차 등에 섞여 밀수돼
 - Her Majesty's Revenue and Customs는 밀수 담배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%에서 10%로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담배 압수 시장의 감소 추세는 최근 주춤해
 - 일반적인 담배 소비 감소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담뱃잎의 절반은 밀수품
- ▶ 밀수로 인해 영국 재무부는 연간 2십2억 달러 규모의 세수입을 잃고 있어
 - 밀수 담배는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를 상쇄시켜 흡연을 줄이려는 정부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
 - 밀수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곳은 다름 아닌 담배회사로 정부가 시행하려는 두 가지 변화를 반대하는 근거로 밀수를 들어

▶ 정부가 시행하려는 첫 번째 변화는 담배세 5% 증가

- 영국의 담뱃세는 이미 담배가격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높아
- 담뱃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흡연을 줄이려는 데 있지만 담배회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흡연자들에게 법적 판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돼
- 아일랜드에서는 2006~7년 담배세 인상 이후 밀수담배 판매량이 늘어나
- 영국의 전 노동당 내각도 밀수 증가가 두려워 2001년 담배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 바 있어

▶ 정부가 시행하려는 두 번째 변화는 담배의 일괄적 포장 방법

- 호주에서는 이미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
- 2012년 12월부터 모든 담배 상품은 건강 주의 경고가 실린 통일된 청록색의 담배 갑에 포장되어 팔리게 될 것
- 프랑스, 핀란드, 캐나다도 이를 고려하고 있어

▶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

- 강력한 판매 제재 조치 가운데 유일한 홍보 수단이던 담배 포장
- 4월부터 슈퍼마켓에서는 담배를 보이는 곳에 전시해서는 안 되며 2015년부터는 작은 가게에도 이 법이 적용될 것
- 담배회사들은 간단한 포장은 쉽게 모방이

가능해 밀수를 부추길 것이라 주장하는 것

▶ 그러나 불법 담배시장이 발전돼 온 양상을 볼 때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듯

-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에 밀수된 대부분의 담배는 외국에서는 법적 판매가 허용되던 것들이었음.
- 그러나 최근의 밀수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 온 짝퉁
- 높은 수익률에 이끌려 외국에서 이런 모조품을 수입해온 범죄집단은 특정 회사의 담배 갑도 쉽게 위조할 수 있어
- 결국 핸드백보다 종이로 만든 갑을 위조하기가 훨씬 쉬워

2012년 3월 10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21549951>〉

상류계층일수록 더 이기적이다

Upper class people are more likely to behave selfishly, studies suggest

▶ 상류계층일수록 거짓말을 자주 하고 속임수를 자주 부리며 끼어들기와 보행자 우선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

▶ 사회계층에 따른 도덕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

은 상류계층에 좋지 않은 평결을 내려 와

- 다양한 상황 속에서 특권계층은 다른 계층들에 비해 부도덕한 행동 양상을 더 많이 보여 와
- 이들은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경향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거나 도로에서 끼어 들기를 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멈추지 않고 그냥 달리며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하는 성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높아
-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학의 심리학자들은 현장에서 비밀리에 실시한 관찰과 후속 실험들을 토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

- ▶ Institute of Personality and Social Research의 사회심리학자 Paul Piff와 연구진은 미국 저널인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서 ‘이기주의(self-interest)’는 사회 상류계층을 움직이는 여러 동인들 중 보다 확고한 동인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그들이 많은 부도덕한 일을 자행한다고 주장해
- 이기주의는 상류계층이 공유하는 공통된 문화규범일 지도 모른다고 덧붙여
- 연구진은 사회적 지위와 탐욕(greed)간에도 강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관계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간극을 더 벌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고 말해
- ▶ 본 연구는 상류계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적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을 줄 모르며 낮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이타적이지 못하

다고 결론 지은 이전 연구에 기반해

- 사람들은 상류계층이 되고 나면 자신에게 누릴 권리가 더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높아진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된다며 Piff 박사가 말해
- 그는 또한 상류층의 사회 환경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차단해 주는 막이 다른 계층보다 두꺼우며 자원이 많아, 즉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 돈이 있어, 행동에 따르는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

- ▶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 연구에서 연구진은 San Francisco Bay Area에 있는 교차로에서 숨어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지나기 전 규정대로 차를 멈추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지 관찰해
- 차가 교차로에 서면 연구진은 차량의 모델, 연수, 겉모양에 따라 차의 등급을 1에서 5등급까지 매겨
- 평균 운전자 12.4%, 비교적 낮은 등급의 차량 운전자 10% 미만, 고급 차량 운전자 3분의 1 이상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진행을 막아
- 연구진은 그 다음으로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 앞에서 멈춰 서는 지를 관찰한 결과 저렴하고 오래된 차량 운전자들은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고급 차량 운전자들은 약 45%가 보행자를 무시하는 것을 발견해

- ▶ 연구진은 다섯 가지 실험실 연구를 통해 상류층과 하류층에 도덕적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
 - 연구 결과 상류계층에 속할수록 협상 과정에서 거짓말을 더 잘하고 돈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실험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준비된 사탕을 몰래 훔치기도 해
 - 한 실험에서는 자원자 105명에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쉽게 취하는 인물이 담긴 여덟 가지 이야기를 읽도록 한 다음 자신들 도 이와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
 - 교육, 소득, 직업 등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잘못된 일을 묵인하는 경향을 보여

- ▶ 또 다른 실험에서는 자원자들에게 컴퓨터로 주사위 놀이를 하게 하면서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진 후의 총합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현금을 주기로 해
 - 실험은 이미 모든 놀이의 총합이 12가 되도록 했으나 상류계층의 사람들일수록 이보다 더 높은 숫자를 총합으로 보고해

- ▶ 마지막 실험에서 연구진은 자원자들에게 탐욕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도록 교육해
 - 연구진은 자원자들에게 부도덕한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탐욕이 좋은 점 세 가지를 쓰도록 요구해
 - 이 연구에서는 상류층 하류층 관계 없이 같은 점수를 얻어
 - 교육 후 하류 계층의 사람들의 행동 점수가 더 나빠졌기 때문
 -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역량 면에서는 상류계층이나 하류계층이나 개인별로 별 다른 차이가 없지만 의식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연구진은 발표해

2012년 2월 27일 / The Guardian

〈원문 링크: <http://www.guardian.co.uk/science/2012/feb/27/upper-class-people-behave-selfishly>〉